



## 벤처투자 열풍을 지켜보며

안 기 만 · 매일경제TV 부국장, 증권부장

요즘은 벤처의 시대요, 주식의 시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벤처와 주식에 돈을 집어넣는다. 이같은 벤처와 주식의 열풍속에서 떼돈을 버는 신흥 귀족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작년 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새롭기술은 주식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한때 2백80만원까지 올랐다. 새롭기술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전의 히트를 친 것이다.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싸게 할 수 있는 장치는 많이 개발됐지만 공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처음이다. 돈을 조금이라도 내는 것과 공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새롭기술이 미국에서 운용하는 다이얼패드는 한달여만에 회원수 60만을 돌파했고 지난 1월말 현재 230만명에 달했다. 이정도면 주가가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어쨌든 세계의 중심인 미국시장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단기간에 수백만 회원을 확보한 실력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벤처기업이 새롭기술과 같은 케이스는 아니다. 벤처시장은 그 속성만큼이나 위험하기 짝이없다. 흔히들 벤처는 95%이상 실패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성공확률이 희박하다는 뜻이

다. 우리보다 벤처 역사가 훨씬 오래된 미국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확률이다.

그런데 왜 벤처에 그 엄청난 돈들이 몰릴까.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의 돈 상당규모가 벤처로 벤처로 움직이고 있다.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 벤처시장으로 쏠리며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덕분에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작년에 유상증자와 일반공모를 통해 약 5조원을 조달했다. 한솔PCS는 3천6백억원, 한통하이텔은 1천9백억원을 코스닥을 통해 끌어갔다.

국가는 벤처지원자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퍼부어대고 금융기관의 펀드와 창투자, 벤처캐피탈 등의 자금도 벤처투자에 혈안이 되어있다. 요즘엔 코스닥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비아냥거렸던 전경련마저도 벤처지원에 나섰다.

대기업들의 벤처투자는 차라리 경쟁적이라 할만하다. 어느 한곳에서 정보통신 벤처에 몇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 다른 곳에선 바이오 벤처에 장기적으로 몇천억원을 투자 하겠노라며 기업을 토하고 있다. 마치 자기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노다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있다. 원래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성격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는 존재다. 대기업은 많은 인력과 대규모의 시설과 거액의 자금으

로 대량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비해 벤처기업은 몇명 안되는 소수의 인력과 얼마 안되는 자금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밀착 삼아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다.

과거에도 벤처형태의 중소기업은 적지않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소비자들의 불신속에 철저히 소외당했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자금결계 지연 등으로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켜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등쌀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항상 성장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 대기업들이 벤처를 지원한다고 앞다퉈 투자기금을 만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마치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벤처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벤처기업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 미국의 야후를 비롯해 라이코스, 아마존 등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며 나스닥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처럼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벤처기업은 특히 인터넷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코스닥에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주들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그렇고 새롬기술, 메디다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열거한 기업들은 그래도 코스닥 등록을 통해 주가 폭등과 막대한 자금조달에 힘입어 당분간 망할 염려는 없는 기업들이다. 사업내용을 잘만 확대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회사를 표방한 상당수의 기업들은 장래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문제다. 아이디어는 그럴듯해도 이것을 과연 언제 어떻게 상품화할수 있는냐이다. 상품화가 되더라도 수익성을 보장 받을수 있는냐는 또다른 문제다.

세계적 인터넷 서적상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은 엄청난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에도 내노라하는 인터넷회사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속성상 이들은 경쟁의 와중에서 도태되기 십상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사용자들에게 극소수만 기억되기 때문에 그 기억의 한계선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를 튀기는 결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결국 극소수의 선택받은 인터넷회사는 번창하게 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방황하거나 퇴출의 운명을 맞게된다.

작년에 코스닥증권시장은 벤처열풍으로 들쭉거렸다. 투자자들은 개장초부터 상한가 주문을 서슴치 않는 문지마 투자로 일관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가치있고 얼마나 성장성이 있나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심지어는 이회사가 어떤 업종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자 주문을 내기도했다.

코스닥지수는 99년 연초 75포인트에서 연말에 256포인트로 끝나 240%나 올랐다. 시가총액도 7조8천억원에서 106조로 팽창했다. 가히 국민적 흥분상태였고 그런 흥분상태가 빚어낸 거품 잔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만고의 진리는 주가가 영원히 오를수 없다는 것이다. 흥분상태는 머지않아 끝나게 마련이고 냉각기가 찾아오면 허탈감만 남는다.

셀물이 빠진 뒤의 황량한 바다 풍경처럼 거품이 빠진 뒤의 주식시장은 참담하기만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부푼꿈을 안고 코스닥시장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올 연초에 처절한 패배감을 맛봤을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벤처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거침없이 뛰었던 것처럼 떨어질 때도 속수무책으로 급락했다. 특히 인터넷



관련주들은 최고가 대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코스닥은 꿈의 주식시장에서 어느새 좌절의 시장으로 변했다. 무엇이 코스닥을 이처럼 처참하게 황폐화시켰는가. 무엇이 투자자들의 가슴을 이처럼 허탈과 좌절로 채우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사회를 흥분상태와 상실감으로 어지럽히는가.

우리사회는 아직 벤처에 익숙치 않은 애먼 모습을 하고 있다. 벤처에서 일확천금만을 찾으려 하고 있다.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경계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벤처 열풍과 코스닥 투자 붐이 불어닥친 이후 평범한 가정주부나 농사짓는 농부들까지도 빚을 내서 코스닥 주식을 사려고 아우성을 쳤다. 직장인들은 때돈 신드롬에 걸려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대학생들은 PC방에서 데이트레이딩 삼매경에 빠졌다.

아무리 벤처가 좋더라도 착실하게 일하여 월급 받고 사는 샐러리맨들이 바보처럼 비쳐지는 현실은 슬픈 풍경이 아닐수 없다.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여 매출을 늘려나가는 전통적 굴뚝산업이 별 볼 일 없는 후진 산업으로 인식되는 세대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아무리 패러다임이 변했다지만 착실히 일하는 월급장이는 필요한 것이고 열심히 물건을 생산하는 굴뚝산업도 건재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체가 벤처기업이요 벤처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막무가내로 벤처투자에 열을 올리는 작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경제 가치관이 흥분된 벤처열풍에 휩싸여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게 주가다. 코스닥시장이건 거래소 시장이건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 폭등했던 주가는 폭락을 낳게 되고 끝없이 떨어지던 주가는 어느새 희망의 새처럼 뛰어 오른다. 그 과정속에서 투자자들은 울고 웃는다. 큰 돈을 거머쥐기도 하고 그 돈을 순식간에 날리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을 웃게하고 울게했던 벤처주도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투자자들은 벤처주가 반드시 오르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묻지마 투자는 반드시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벤처열풍과 그 후유증은 우리사회가 벤처시대를 맞아 한번쯤 격고 넘어가야할 통과 의례였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는 냉정을 되찾고 좀더 성숙한 자세로 벤처를 바라봐야 할 때다. 한 몫 잡기식 투기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주체로서 인식해야 벤처산업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